

#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 중 내분비계 장애추정농약 모니터링 및 위해성평가

## I 연구목적 및 필요성

- 인체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농약에 대한 유통 농산물의 잔류실태와 부산시민의 농산물 섭취량에 따른 위해가능성을 평가하여, 농약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진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

## II 주요 연구내용

- 연구기간 : 2016년 1월 ~ 12월(1년)
- 연구대상 : 부산지역 유통 농산물(채소류 및 과일류를 중심으로) 총 462건
- 연구방법 : 농산물에 잔류된 아세트클로르 등 내분비계 장애추정농약(EDPs) 38종의 농도 및 농산물섭취량을 고려한 일일섭취추정량과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을 비교하여 위해성을 평가함

## III 연구결과

- 총 462건의 농산물 중에서 12종의 EDPs 90건이 검출(19.5%), 채소류가 334건 중 58건 검출(17.4%), 과일류가 128건 중 32건 검출되었으며(25.0%), 그 중 엷갈이배추에서 다이아지논 1건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(0.2%)
- 월별 검출률은 3월과 6월이 높았으며(3.9%), 10월이 가장 낮았음(0.9%)
- 위해성평가 결과 검출된 모든 EDPs의 위해도가 평균 1% 미만, 최고검출 값을 반영한 위해도가 10% 미만으로 나타났으며, 연령대별 위해도는 엷갈이배추의 다이아지논이 여성 만 40세-49세 그룹에서, 사과와 카벤다짐이 남성 만 10세 미만의 그룹에서 가장 높았으나 위해성은 크지 않았음

## IV 정책연계방안

- 기존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재개정하는 등의 정책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

## V 활용계획

- 건강 유해성이 낮은 농약을 사용하도록 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교육 및 홍보